

단양 주민들이 만든 연극, 유튜브 공개

군 평생학습센터 '다자구 할머니'

영상 제작 '알리마 TV'에 게시

충북 단양군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진행한 연극 프로그램을 지난 15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병행 연극 수업으로 단양 대강면 일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자구 할머니' 연극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다자구 할머니는 단양군 대강면에 위치한 죽령산신당(충북도 지역문화재 제3호)과 연관된 신화 속 인물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주민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번 연극에는 지역과 관련된 역사 속 인물인 평강공주, 이강년 의병장도 함께 등장한다.

이들이 이번 연극을 통해 인간관계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N포 세대에게 전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연극에는 20~70대 주민 13명이 참여해 기획부터 대본까지 직접 작성하고 지역 연극단인 청춘극장의 도움도 받았다.

센터는 당초 연극 공연을 주민들에게 선 보일 예정이었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연극을 영상으로 제작해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단양 알리마 TV'에 게



연극에 출연한 주민배우들

시했다.

모시업(생생문화재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문화재청 국비공

/단양=목성균기자

23.1 X 9.0 cm

충청신문

2021년 12월 17일 (금)
12면 지역

단양 주민들 주연·제작 '다자구 할머니 연극' 화제

군 평생학습센터, 온·오프라인 병행 연극 수업 운영

지역 역사 인물 등장 인간관계 등 희망 메세지 담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단양군 주민들이 직접 주연하고 제작한 다자구 할머니 연극이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군 평생학습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병행 연극 수업을 운영했으며 6개월 간의 성과물로 다자구 할머니 연극을 영상으로 직접 제작했다고 밝혔다.

다자구 할머니는 단양군 대강면에

위치한 죽령산신당(충청북도 지역문화재 제3호)과 연관된 신화 속 인물로 다자구 할머니의 활약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도적떼를 소탕한 이야기가 전해지며, 지금까지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지역 주민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번 연극에는 단양 지역과 관련된 역사 속 인물들인 평강공주, 이강년 의병장도 함께 등장하며 이들이 최근 주거, 결혼, 인간관계 등 인생의 많은 부

분을 포기한 N포 세대에게 전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았다.

연극 기획부터 대본, 연습, 시연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단양 관내 연극단인 '청춘극장'의 도움을 받았다.

군 평생학습센터는 당초 실제 연극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극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해 단양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단양 알리마 TV'에 게시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군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참여한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용기 내 이번 연극에 참여했다"며 "이번 연극 영상이 군 평생학습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학습 욕구를 자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 평생학습센터는 올해 3월 문화재청 국비공모사업 생생문화 재사업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 문화재와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한 단양만의 특색을 살린 인문학적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단양/정연환 기자

jyh3411@dailycc.net

16.9 X 16.0 cm



단양군 주민들이 직접 주연하고 제작한 다자구 할머니 연극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단양군체육)

연기 서툴고 어색해도 감동 두배

단양군 다자구 할머니 연극 화제
지역 인물 주제…주민 주연·제작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단양군 주민들이 직접 주연하고 제작한 다자구 할머니 연극이 화제다.

15일 군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4월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병행 연극 수업을 운영했으며 6개월간의 성과물로 다자구 할머니 연극을 영상으로 직접 제작했다.

다자구 할머니는 단양군 대강면에 위치한 죽령산신당(충청북도 지역문화재 제3호)과 연관된 신화 속 인물로 다자구 할머니의 활약으로 주민을 괴롭히는 도적떼를 소탕한 이야기가 전해지며 지금까지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지역 주민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번 연극에는 단양 지역과 관련된 역사 속 인물들인 평강공주, 이강년 의병장도 함께 등장하며 이들이 최근 주거, 결혼, 인간관계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N포세대에게 전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았다.

연극 기획부터 대본, 연습, 시연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으

며 단양 관내 연극단인 '청춘극장'의 도움을 받았다.

군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참여한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용기 내 이번 연극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제작부터 연기까지 직접 참여해 다자구 할머니 연극을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단양군

랜선 공개 '다자구 할머니' 인기

**단양군, 20대부터 70대 주민
직접 참여해 6개월간 맹연습**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단양군 주민들이 직접 주연하고 제작한 연극 '다자구 할머니'가 화제다.

군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4월부터 평생 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병행 연극 수업을 운영했으며 6개월간의 성과물로 다자구 할머니 연극을 영상으로 직접 제작했다.

다자구 할머니는 단양군 대강면에 위치한 죽령산신당(총청북도 지역문화재 제3호)과 연관된 신화 속 인물로 다자구 할머니의 활약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도적떼를 소탕한 이야기가 전해지며 지금까지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지역 주민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번 연극에는 단양 지역과 관련된 역사 속 인물들인 펑강공주, 이강년 의병장도 함께 등장하며 이들이 최근 주거, 결혼, 인간관계 등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 를 담았다.

연극 기획부터 대본, 연습, 시연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단양지역 극단 '청춘극장'의 도움을 받았다.

군 평생학습센터는 당초 실제 연극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극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해 단양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단양

알리마 TV'에 게시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군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참여한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에 서툴고 어색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용기 내 이번 연극에 참여했다"며 "이번 연극 영상이 군 평생학습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습 욕구를 자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는 올해 3월 문화재청 국비공모 생생문화재 사업에 선정돼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지역 문화재와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한 단양만의 특색을 살린 인문학적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17.0 X 20.0 cm



단양 주민들 주연·제작한 '다자구 할머니 연극' 화제

단양 주민들이 직접 주연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제작한 다자구 할머니 연극이 화제다.(사진)

군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4월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연극 수업을 운영했고, 6개월 간의 성과물로 다자구 할머니 연극을 영상으로 직접 제작했다.

다자구 할머니는 단양군 대강면에 위치한 죽령산신당(충북도 지역 문화재 3호)과 연관된 신화 속 인물이다. 다자구 할머니의 활약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도적떼를 소탕한 이야기가 전해지며, 지금까지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지역 주민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연극 기획부터 대본, 연습, 시연

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단양지역 연극단인 '청춘극장'의 도움을 받았다.

군 평생학습센터는 당초 연극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해 단양군 공식 유튜브 채널 '단양 알리마 TV'에 게시했다.

단양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17.7 X 14.3 cm

단양 주민들이 함께 만든 '다자구 할머니'

20~70대 지역민들 직접 주연·제작
공연 영상 유튜브 '알리마 TV' 게시

단양군 '다자구 할머니' 연극이 화제다. 이 연극은 20대~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직접 주연하고 제작했다.

군에 따르면 군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4월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온·오프라인 병행 연극 수업을 운영했다.

6개월 간의 성과물로 다자구 할머니 연극을 영상으로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이번 연극에는 단양 지역과 관련된 역사 속 인

물들이 평강공주, 이강년 의병 장도 함께 등장했다.

연극 기획부터 대본, 연습, 시연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단양 관내 연극단인 '청춘극장'의 도움을 받았다.

군 평생학습센터는 실제 연극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해 단양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단양 알리마 TV'에 게시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자구 할머니 연극에 참여한 주민들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군 평생학습센터는 올해 3월 문화체육 국비공모사업(생생문화예술사업)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다자구 할머니는 단양 대강면에 위치한 죽령산신당과 연관된 신화 속 인물로,

다자구 할머니의 활약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도적떼를 소탕한 이야기다.

주민들은 다자구 할머니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정봉길 / 단양

24.7 X 14.8 cm